

2021년 6-1호

# KIET 경제산업동향

2021. 6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 차례 >

< 요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용	12
6. 수출입	13
< 부 록 >	
산업별 수출경쟁력 비교 및 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원 (2021.5월) ]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 요약 >

### □ 해외경제 : 일본 올 1분기중 전기비 -1.0%, 유로존 -0.3% 성장

- 미국은 4월 경제지표들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3~4월중 총 3차례에 걸쳐서 약 6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
- 일본은 올 1분기중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위축되고, 수출이 둔화된 영향으로 인해 전기비 -1.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유로존도 독일의 마이너스 성장과 프랑스의 미약한 성장 등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0.3%)
- 중국은 4월 생산과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이 전월보다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된 반면에, 수출 증가세는 다시 확대되면서 외수 여건의 회복세를 반영
- 달러화는 지난 5월중 하락한 이후에 6월 들어서도 연준의 테이퍼링 지연 가능성으로 미 국채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주요국 통화 대비 약보합
- 유가는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지속과 美 EIA의 올해 유가 전망치 상향 등에 힘입어 WTI유 기준 지난 2018.10월 이후 처음으로 70달러를 돌파

### □ 국내경기 : 1분기 실질GDP 1.7% 성장, 4월 전산업생산 1.1% 감소

- 올 1분기 국내 실질GDP는 수출 둔화 영향에도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기비 1.7% 증가, 전년동기비 기준 1.9% 증가
  - 4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전월보다 더욱 감소하고, 서비스업생산도 전월보다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전월비 기준 3개월 만에 감소(-1.1%)

### □ 금 융 : 5월 기업대출 둔화·가계대출 감소 전환, 6월 초순(6.1~6.10일) 금리 하락 후 급반등 및 원/달러 상승

- 5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이 감소하고, 중소기업 대출이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체 규모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도 기타대출이 감소하면서 전월과 달리 감소

- 국고채(3년) 금리는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발표와 미국 금리 하락세 등으로 동반 하락세를 보이다, 한은 관계자의 매파적 발언으로 급등 전환
- 원/달러 환율은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 등으로 하락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송금 수요와 중국의 위안화 절하 방침 등으로 상승

**□ 산업별 동향 : 4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 지속**

- 제조업생산은 기타운송장비를 제외하고 반도체, 자동차, 기계장비, 화학제품 등 다수 주력 업종에서 두 자릿수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비 13.0% 증가
  - 제조업ICT와 중공업 생산은 두 자릿수 증가, 경공업은 2개월 연속 증가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와 운수·창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 등에서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데 힘입어 8.4% 증가
  - ICT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4.4% 증가, 전월비 기준 7.1% 감소

**□ 고용 : 5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2.3% 증가**

- 지난 5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에서 전월에 이어 소폭의 감소세가 이어진 반면에, 제조업과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동반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2%대 증가세가 지속(2.5% → 2.3%)

**□ 수출입 : 5월 수출 +45.6%, 수입 +37.9%, 무역흑자 29억 달러**

- 지난 5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45.6% 증가한 507억 달러, 수입은 37.9% 증가한 478억 달러로, 무역흑자 규모는 29억 달러를 기록
- 품목별로는 조선을 제외한 12개 주력 품목들의 수출이 동반 증가하고,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주요 지역들에 대한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자동차 등 주력 품목들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석유 관련 품목들의 수출도 대폭 증가하면서 수출이 2개월 연속 40%대 증가율

# 1. 해외경제

## □ 미국 : 4월 경제지표 부진, 바이든 정부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 4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전월 수준에 그치고, 체감지표들이 부문간 혼조세를 보이면서 경제지표들이 다소 부진. 바이든 정부는 연내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 3~4월중 6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

- 산업생산은 IT(0.4%) 생산 둔화와 자동차·부품(-4.3%) 감소 등의 여파로 전월과 달리 0.7% 증가에 그치고, 소매판매도 지난 1월과 3월 시행된 바이든 행정부의 현금 지원책 영향이 소멸되면서 전월 수준에서 보합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구성지표인 신규수주와 생산, 고용 등이 동반 하락하면서 2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인 반면, 소비자 신뢰지수는 현재 평가지수가 상당 폭 오르면서 지난 2020.2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
- 비농업 일자리 수는 제조업에서 3개월 만에 감소 전환함에 따라 전월 비 증가 규모가 축소된 반면,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비 상승 폭이 확대
- 바이든 정부는 지난 3~4월중 총 3차례에 걸쳐 약 6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연내 빠른 실물경기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

###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2.2	-3.5	33.4 (-2.8)	4.3 (-2.4)	6.4 (0.4)				
산업생산 (IT생산)	0.9 (5.1)	-6.7 (4.3)	9.4 (4.2)	2.3 (3.1)	0.3 (1.3)	0.9 (0.8)	-3.5 (-0.2)	2.4 (2.2)	0.7 (0.4)
내구재수주	-1.5	-7.1	23.8	4.7	5.5	2.4	1.3	1.3	-1.3
소매판매	3.3	0.3	14.2	0.4	7.8	7.6	-2.9	10.7	0.0
소비자물가	1.8	1.2	1.1	0.6	0.9	0.3	0.4	0.6	0.8
실업률(%)	3.7	8.1	8.8	6.8	6.2	6.3	6.2	6.0	6.1
무역수지(10억US)	-576.3	-676.7	-187.1	-196.8	-212.8	-67.1	-70.6	-75.0	-68.9
ISM 제조업지수 <sup>1)</sup>	51.3	52.5	55.2	59.1	61.4	58.7	60.8	64.7	60.7
소비자신뢰지수 <sup>2)</sup>	128.3	100.9	93.1	93.4	96.1	88.9	90.4	109.0	121.7
경기선행지수 <sup>3)</sup>	111.6	106.1	106.3	109.0	110.6	110.2	110.1	111.5	113.3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3월 생산 증가·소비 둔화, 1분기중 -1.0%로 마이너스 성장

- 지난 3월중 생산과 수주가 동반 증가세로 전환한 반면에, 소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실업률이 2020.4월 이후 최저치 수준(2.6%)으로 하락. 올 1분기 실질GDP는 소비(전기비 -1.5%)와 투자(-1.2%), 정부지출(-1.1%) 등 내수 위축과 수출 둔화(2.2%) 등의 여파로 인해 3분기 만에 마이너스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2월	1/4	1월	2월	3월
국내총생산(실질GDP)	0.0	-4.7	5.3	2.8		-1.0			
광공업생산	-2.7	-10.6	9.0	5.7	-0.2	2.8	3.1	-1.3	1.7
민간기계수주	-0.9	-8.5	-0.3	12.9	5.3	-5.3	-4.5	-8.5	3.7
소매판매	0.1	-3.5	8.2	0.1	-0.6	0.4	-1.7	3.1	1.2
소비자물가	0.5	0.0	0.0	-0.6	-0.1	0.5	0.6	0.1	0.2
실업률(%)	2.4	2.8	3.0	3.0	3.0	2.8	2.9	2.9	2.6
무역수지(10억엔)	-1,668	563	881	1,959	745	547	-327	212	662
경기선행지수 <sup>1)</sup>	93.9	89.0	90.1	96.6	97.4	100.1	98.2	98.9	103.2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15년=100.

□ 중국 : 4월 내수 둔화·수출 확대, 인민은행 금리 13개월 연속 동결

- 4월 생산과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이 전월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반면에, 수출 증가는 다시 확대되면서 외수 경기의 회복세 지속을 반영. 소비자물가는 전월보다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2020.9월 이후 최고치 수준이나,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13개월 연속 동결하면서 인플레이 안정화를 뒷받침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1월	1~2월	3월	4월
국내총생산(실질GDP)	6.0	2.3	4.9	6.5	18.3				
산업생산	5.7	2.8	5.8	7.1	24.6	-	35.1	14.1	9.8
고정투자(누계기준)	5.4	2.9	0.8	2.9	30.3	-	35.0	25.6	19.9
소매판매	8.0	-3.9	0.9	4.6	34.0	-	33.8	34.2	17.7
소비자물가	2.9	2.5	2.3	0.1	0.0	-0.3	-0.2	0.4	0.9
수출(달러화기준)	0.5	3.6	8.9	16.9	45.6	-	60.6	30.6	32.3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3월 실물지표 혼조 지속,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0.3%)

- 지난 3월 역대 생산이 소폭 증가하고,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부문간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 역대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마이너스 성장(-1.8%)과 프랑스(-0.1%) 등의 미약한 성장세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2월	1/4	1월	2월	3월
국내총생산(실질GDP)	1.3	-6.8	12.6	-0.6		-0.3			
산업생산	-1.3	-8.5	16.1	4.3	-0.1	0.8	0.9	-1.2	0.1
소매판매	2.4	-1.0	10.2	-1.0	1.9	-2.1	-5.1	4.2	2.7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2	0.3	0.0	-0.3	-0.3	1.1	0.9	0.9	1.3
무역수지(10억유로)	223.1	235.2	62.1	76.2	26.9	64.1	28.0	23.1	13.0
경기체감지수 <sup>1)</sup>	103.7	88.2	88.5	91.4	92.4	95.3	91.5	93.4	100.9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약보합 & 유가 70달러 돌파

- 달러화는 지난 5월중 글로벌 인플레이 압력 우려에도 연준의 저금리 기조 유지 전망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6월 들어서도 연준의 테이퍼링 지연 가능성으로 미 국채금리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주요국 통화 대비 약보합
- 유가는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지속과 여름 드라이빙 시즌 기대감 등으로 브렌트유가 7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미국 EIA의 올해 유가 전망치 상향(약 5%) 등에 힘입어 WTI유도 2018.10월 이후 처음으로 70달러를 돌파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0				2021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10일
엔/달러	105.48	104.66	104.31	103.25	104.68	106.57	110.72	109.31	109.58	109.33
달러/유로	1.1721	1.1647	1.1927	1.2216	1.2136	1.2075	1.1730	1.2020	1.2227	1.2170
미 국채 (10년만기)	0.68	0.87	0.84	0.91	1.07	1.40	1.74	1.63	1.59	1.43
WTI유	40.2	35.8	45.3	48.5	52.2	61.5	59.2	63.6	66.3	70.3
두바이유	39.3	36.9	46.6	50.2	54.3	63.1	62.4	64.5	66.6	70.0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1분기 실질GDP 1.7% 성장, 4월 전산업생산 1.1% 감소

○ 올 1분기 국내 실질GDP는 수출 둔화 영향에도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기비 1.7% 증가, 전년동기비 기준 1.9% 증가

-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전기비 기준 각각 1.2%와 6.1% 증가하면서 2분기 만에 증가세를 회복한 반면에, 건설투자는 1.3% 증가에 그치면서 전분기보다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 증가율도 하락(5.3% → 2.0%)

###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GDP성장률	2.2	-0.9*	-1.1* (2.2*)	-1.1* (1.1*)	1.9* (1.7*)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2.1	-5.0*	-4.5* (0.2*)	-6.6* (-1.3*)	1.2* (1.2*)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6.6	7.1*	10.7* (5.8*)	6.1* (-0.6*)	12.4* (6.1*)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7	-0.4*	-1.5* (-3.9*)	-2.9* (3.5*)	-1.8* (1.3*)	-	-	-	-
전산업생산지수	1.0	-1.2	-0.9 (2.8)	-1.5 (1.6)	2.7* (1.7*)	1.5 (-0.5)	0.4* (2.0*)	5.7* (0.9*)	8.8* (-1.1*)
광공업생산지수	0.4	-0.4	0.2 (6.0)	0.0 (2.9)	4.4* (3.3*)	7.8 (-1.2)	0.8 (4.2)	4.4* (-0.9*)	12.4* (-1.6*)
제조업생산지수	0.5	-0.3	0.4 (6.4)	-0.1 (3.1)	4.4* (3.3*)	7.6 (-1.5)	0.9 (4.7)	4.5* (-0.9*)	13.0* (-1.7*)
서비스업생산지수	1.4	-2.0	-1.7 (2.0)	-2.0 (0.9)	2.2* (0.7*)	-1.8 (-0.1)	0.8 (1.1)	7.8* (1.3*)	8.4* (0.4*)
소매판매액지수	2.4	-0.2	1.6 (-1.1)	-1.2 (0.9)	6.3* (1.7*)	0.0 (1.6)	8.2 (-0.9)	10.9* (2.3*)	8.6* (2.3*)
설비투자지수	-5.7	6.0	7.7 (2.2)	2.8 (0.8)	11.9* (6.9*)	19.4 (6.3)	7.1 (-2.2)	9.5* (0.0*)	16.8* (3.5*)
건설기성액	-2.3	-4.1	-4.2 (-2.8)	-5.3 (2.5)	-7.2* (-3.6*)	-8.0 (-7.6)	-8.3 (6.8)	-5.7* (0.3*)	-1.8* (-0.8*)
동행종합지수(2015=100)	112.0	112.3	111.7	113.6	114.4*	113.9	114.3*	115.1*	116.4*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1	98.7	98.1	99.4	99.8*	99.4	99.7*	100.2*	101.3*
선행종합지수(2015=100)	114.6	119.5	120.0	122.5	124.7*	124.1	124.8*	125.3*	126.2*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99.5	100.5	100.5	101.9	102.9*	102.7	102.9*	103.2*	103.6*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 지난 4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전월비 더욱 감소하고, 서비스업생산도 전월보다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전월비 기준 3개월 만에 감소(-1.1%)
  - 광공업생산은 제조업(전월비 -1.7%)에서 전월비 감소폭이 확대됨에 따라 전월비 1.6% 감소하고, 서비스업생산은 증가폭이 현저히 둔화(0.4%)
  - 소매판매는 내구재(0.7%)가 소폭 증가하고, 준내구재(4.3%)와 비내구재(2.4%) 판매가 동반 증가하면서 전월비 2.3% 증가하는 한편, 설비투자도 기계류(3.0%)와 운송장비(5.0%)가 동반 증가하여 전월비 3.5% 증가
  - 동행종합지수는 비농림어업 취업자수와 수입액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월비 1.1% 상승(2011.1월 이후 최고치 상승률)하고, 선행종합지수도 건설수주액이 감소한 반면에, 경제심리지수와 재고순환지표 등이 상승한 데 힘입어 0.7% 상승(2020.4월부터 13개월 연속 상승세)

□ 물가 : 5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1%, 전년동월비 2.6% 상승

- 5월 소비자물가는 식료품·비주류음료(전월비 -0.5%)와 통신(-0.4%)에서 하락하고, 주류·담배와 보건, 교통 등에서 보험세(0.0%)를 보인 반면, 나머지 품목에서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전월비 0.1% 상승(전년동월비 2.6%)
- 4월 생산자물가는 서비스(전월비 0.3%)에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된 반면, 농림수산물(-2.9%)은 낙폭이 확대되고, 공산품(1.1%)에서 상승폭이 둔화됨에 따라 전월비 0.6% 상승(전년동월비 5.6%, 2011.10월 이후 최고치)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2/4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5월
소비자물가	0.4	0.5	-0.1 (-0.8)	0.6 (0.6)	0.4 (0.1)	1.1 (1.2)	0.6 (0.8)	1.1 (0.5)	1.5 (0.1)	2.3 (0.2)	2.6 (0.1)
근원물가	0.9	0.7	0.5 (0.0)	0.8 (0.2)	0.7 (0.0)	0.9 (0.6)	0.9 (0.3)	0.8 (0.1)	1.0 (0.1)	1.4 (0.3)	1.5 (0.3)
생산자물가	0.0	-0.5	-1.5 (-1.4)	-0.6 (1.0)	-0.2 (0.2)	2.3 (2.5)	0.9 (1.1)	2.1 (0.8)	4.1 (1.1)	5.6 (0.6)	-
근원물가	0.1	-0.1	-1.0 (-0.8)	-0.2 (0.8)	0.5 (0.5)	2.4 (2.0)	1.5 (0.9)	2.1 (0.6)	3.8 (0.9)	5.2 (0.9)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 3. 국내금융

#### □ 기업자금·가계대출 : 5월 기업대출 둔화·가계대출 감소 전환

- 5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이 소폭 감소하고, 중소기업 대출이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체 규모의 증가폭이 축소  
(21.4월 +11.4조원 → 21.5월 +5.7조원, 대기업 -0.8조원, 중소기업 +6.5조원)
  - 대기업 대출은 운전자금 수요 감소와 전월의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에 따른 계절적 요인 소멸 등으로 소폭 감소
  - 중소기업 대출도 은행·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지속된 반면에, 전월비 증가폭이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축소
- CP는 전월과 달리 순상환 기조로 전환  
(21.4월 +2.3조원 → 21.5월 -1.1조원)
- 회사채 역시 전월의 큰 폭 발행 이후에 소폭의 순상환 기조로 전환  
(21.4월 +3.2조원 → 21.5월 -0.2조원)
- 주식발행은 일부 대기업의 기업 공개 등의 영향으로 상당 폭 증가  
(21.4월 +0.2조원 → 21.5월 +3.2조원)

####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9		2020		2021			21.5월말 잔액	
	1~5월	5월	1~5월	5월	1~5월	3월	4월		5월
■ 은행 원화대출	25.7	6.0	76.2	16.0	40.7	4.6	11.4	<b>5.7</b>	1,017.1
(대 기업)	3.0	0.6	27.5	2.7	2.4	-2.7	2.0	<b>-0.8</b>	174.2
(중소기업)	22.7	5.4	48.6	13.3	38.3	7.3	9.5	<b>6.5</b>	842.9
<개인사업자>	9.6	2.0	26.1	7.7	16.2	3.6	3.8	<b>2.3</b>	402.2
■ 회사채 순발행	7.0	0.5	6.3	3.3	10.8	1.9	3.2	<b>-0.2</b>	..
■ CP 순발행	4.9	-1.3	6.8	-0.7	6.9	0.7	2.3	<b>-1.1</b>	29.8
■ 주식발행	2.5	1.5	0.9	0.1	12.4	6.6	0.2	<b>3.2</b>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5월중 금융시장 동향).

- 5월 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에, 기타대출이 감소 전환되면서 전월과 달리 감소  
(21.4월 +16.1조원 → 21.5월 -1.6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와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증가 지속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1.4월 +4.2조원 → 21.5월 +4.0조원)
- 반면에 기타대출은 공모주 청약증거금 반환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모습이나, 주택거래 및 주식투자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감소폭이 제한적  
(21.4월 +11.8조원 → 21.5월 -5.5조원)

###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9		2020		2021			21.5월말 잔액	
	1~5월	5월	1~5월	5월	1~5월	3월	4월		5월
은행 가계대출	15.9	5.0	32.4	5.0	35.3	6.5	16.1	-1.6	1,024.1
■ 주택담보대출	14.5	2.9	27.2	3.9	25.3	5.7	4.2	4.0	747.2
■ 기타대출	1.5	2.1	5.3	1.1	10.0	0.8	11.8	-5.5	276.0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5월중 금융시장 동향).

### □ 금리·환율 : 6월 초순(6.1~6.10일) 금리 하락 후 급반등, 원/달러 상승

- 국고채(3년) 금리는 지난 5월중 국내외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발표와 미국 금리 하락세, 추경 우려 완화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한은 관계자의 매파적 발언으로 급등 전환  
(6.1일 1.21% → 6.10일 1.28%, 0.07%p 상승)
- 원/달러 환율은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4.0%) 상향과 국내 증시 강세로 인한 위험선호 심리 회복 등으로 하락세를 보인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에 따른 역송금 수요와 중국의 위안화 절하 방침 등으로 상승  
(6.1일 1,105.9원 → 6.10일 1,115.8원, 9.9원 상승)

###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19		2020		2021				
	4/4	1/4	2/4	3/4	4/4	1/4	4월	5월	6.10일
국고채(3년)	1.36	1.07	0.84	0.85	0.98	1.13	1.14	1.23	1.28
회사채(3년,AA-)	1.94	2.08	2.25	2.19	2.21	2.06	1.91	1.95	1.88
CD(91일)	1.53	1.10	0.79	0.63	0.66	0.75	0.73	0.66	0.66
CP(91일)	1.69	2.20	1.51	1.11	1.09	1.00	0.97	0.97	0.97
원/달러	1,156.4	1,217.4	1,203.0	1,169.5	1,086.3	1,131.8	1,112.3	1,110.9	1,115.8
원/100엔	1,063.5	1,130.8	1,116.1	1,112.1	1,054.3	1,027.3	1,016.9	1,012.3	1,019.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증가 기준.

#### 4. 산업별 동향

##### □ 제조업생산 : 4월중 전년동월비 +13.0%, 전월비 -1.7%

○ 제조업생산은 기타운송장비(전년동월비 -13.5%)를 제외하고 반도체(30.0%)와 자동차(20.1%), 기계장비(16.6%), 화학제품(12.1%) 등 다수 주력 업종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13.0% 증가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22.5%)에서 두 자릿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공업(13.8%)도 두 자릿수 증가, 경공업(9.0%)은 2개월 연속 증가

- 전월비 기준으로는 기계장비(5.3%)와 1차금속(1.4%) 등이 증가세를 보인 반면에, 반도체(-10.9%)가 비교적 큰 폭 감소하고, 자동차(-0.9%)와 화학제품(-0.3%) 등도 감소세를 보인 영향으로 전체 기준 1.7% 감소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5.1)는 금속가공과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하락세를 유지한 반면에, 반도체와 기계장비, 자동차 등 주력 업종에서 상승세를 유지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1.4% 상승, 전월비 기준으로 0.3% 하락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02.4%로 전월비 0.8%p 상승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출하 증가 폭이 더욱 확대(3.5% → 10.1%, 계절조정 기준 전년동기비)되고, 재고 역시 감소세가 확대(-3.8% → -4.3%)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8%로 전월비 1.1%p 하락

##### □ 서비스업생산 : 4월중 전년동월비 +8.4%, 전월비 +0.4%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전년동월비 9.3%)와 운수·창고(15.9%), 전문·과학·기술서비스(7.6%),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5.5%) 등에서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데 힘입어 전체 기준 8.4% 증가(2017.10월 이후 최대폭)

- 전월비 기준으로는 도소매(0.8%)와 숙박·음식점(3.1%) 등에서 증가폭이 둔화된 데다, 운수·창고(-2.2%)와 정보통신(-2.0%), 전문·과학·기술(-1.0%) 등에서 전월과 달리 감소세로 전환된 영향으로 증가율이 0.4%로 하락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4.4%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7.1% 감소

## 산업별 생산 동향

(2015=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19년)	2019	2020			2021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전월비*
<b>광 공 업 (원지수)</b>	10,000	106.7	106.3	106.4	112.9	109.8	100.5	118.6	114.2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4	-0.4	0.2	0.0	4.4	0.8	4.4	12.4	-1.6
<b>제 조 업 (원지수)</b>	9,484.5	106.6	106.3	106.7	112.9	109.1	99.7	118.8	114.8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5	-0.3	0.4	-0.1	4.4	0.9	4.5	13.0	-1.7
섬 유	135.0	-5.9	-10.5	-8.9	-6.2	-4.4	-13.6	0.2	27.4	-2.3
화 학	883.8	-1.3	-3.0	-4.1	-1.2	2.8	-0.1	8.1	12.1	-0.3
철 강	454.3	-2.2	-6.3	-9.0	-1.5	-1.9	-6.5	-0.9	5.3	1.7
반도체	1,285.6	11.7	22.6	20.7	12.6	21.9	19.9	25.5	30.0	-10.9
컴퓨터, 주변장치	31.3	-8.0	-7.9	-9.7	0.8	-3.2	-3.7	-4.9	2.1	11.8
통신, 방송장비	131.5	-2.8	-11.3	-23.5	2.2	28.5	9.6	18.1	51.2	12.0
의료, 정밀, 광학	218.0	-11.0	3.8	7.2	9.8	16.4	8.6	18.4	32.3	-1.1
기계, 장비	819.2	-5.9	3.7	6.7	3.7	9.3	4.8	6.9	16.6	5.3
자동차	981.6	-0.5	-10.0	-1.0	-2.9	11.2	21.9	-0.6	20.1	-0.9
조 선	206.3	17.6	8.6	9.0	-1.3	-15.6	-30.4	-17.4	-13.9	-1.4
- 중 공 업	-	0.6	0.6	0.7	0.6	5.4	2.5	4.8	13.8	10.5
- 경 공 업	-	-0.6	-4.0	-1.5	-2.9	-0.3	-5.8	3.3	9.0	4.3
- 제조업ICT	-	4.8	11.9	8.9	8.5	14.0	11.9	13.5	22.5	-9.3
<b>서비스업 (원지수)</b>	1,000	108.4	106.2	105.9	110.5	105.9	101.5	111.5	109.6	-
전년동기비 증감률	-	1.4	-2.0	-1.7	-2.0	2.2	0.8	7.8	8.4	0.4
도소매	211.3	-0.4	-2.6	-1.6	-1.8	3.1	3.3	8.4	9.3	0.8
운수및창고	90.3	0.0	-14.2	-16.1	-13.1	-2.4	-4.1	14.2	15.9	-2.2
숙박및음식점	61.6	-1.0	-18.5	-15.6	-24.6	-13.1	-11.2	19.3	8.3	3.1
정보통신	79.9	3.6	1.5	0.2	0.0	2.0	1.0	4.6	3.1	-2.0
금융및보험	140.9	1.7	14.0	16.4	18.7	14.9	11.6	9.8	12.3	0.6
부동산	31.8	0.5	5.5	6.2	0.5	-2.6	-8.0	-0.4	8.9	4.2
전문·과학및기술	71.0	1.4	0.1	-0.8	0.3	2.0	-1.1	5.2	7.6	-1.0
사업시설관리 등	47.7	2.3	-9.9	-9.9	-11.7	-3.7	-2.6	1.9	5.5	1.4
교 육	106.0	-0.4	-4.7	-4.3	-3.9	0.1	-0.7	5.9	4.3	0.7
보건및사회복지	94.3	8.1	1.4	0.3	-0.4	0.9	0.7	2.4	2.2	1.0
예술·스포츠및여가	21.7	0.8	-32.6	-33.1	-33.3	-18.0	-21.1	35.0	38.4	3.2
협회·수리및개인	32.1	-1.6	-8.2	-5.0	-10.4	-1.8	-8.0	16.1	8.0	-0.9
수도·하수및폐기물	11.4	-0.4	3.3	1.4	2.3	0.4	-9.7	5.0	6.5	-3.0
- ICT서비스업	-	3.5	4.9	4.8	3.4	4.3	2.8	4.9	4.4	-7.1

자료 : 통계청.

주 : \*는 잠정치.

## 5. 고용

### □ 취업자 수 : 5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2.3% 증가

○ 지난 5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에서 전월에 이어 소폭의 감소세가 이어진 반면에, 제조업과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동반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2%대 증가세가 지속(2.5% → 2.3%)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소폭의 증가세(0.2% → 0.4%)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세(-0.2% → -0.2%)가 이어진 반면, SOC·기타서비스의 취업자 수가 전월보다 증가폭이 둔화(3.1% → 2.9%)
- 건설업의 취업자 수도 증가폭이 약간 둔화(7.3% → 6.6%)된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수는 전월에 이어 감소 지속(-2.2% → -2.3%)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부문은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9.9% → 10.3%)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3.0% → 7.7%),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7.4% → 7.6%)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5.6% → 5.0%)와 교육서비스(3.7% → 2.3%)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전체 규모가 3개월 연속 증가세(4.5% → 4.6%)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8%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

###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5월
전 산업	27,123	26,904	27,068	26,952	26,369	25,818	26,365	26,923	27,214	27,550
전년동기비	1.1	-0.8	-1.1	-1.6	-1.4	-3.7	-1.8	1.2	2.5	2.3
농림·어업	4.1	3.6	0.6	2.4	-0.2	-1.2	2.7	-1.8	-0.2	-0.2
제조업	-1.8	-1.2	-1.3	-2.4	-0.6	-1.0	-0.6	-0.3	0.2	0.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6	-1.0	-1.2	-1.7	-1.7	-4.3	-2.3	1.7	3.1	2.9
건설업	-0.7	-0.2	0.4	2.2	1.7	-1.0	1.4	4.7	7.3	6.6
도소매·음식숙박업	0.0	-5.3	-6.3	-7.0	-6.9	-9.9	-7.3	-3.5	-2.2	-2.3
전기·운수·통신·금융	0.2	0.7	0.5	-0.3	1.8	0.9	0.7	3.9	5.5	4.4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5	0.9	0.8	0.2	-0.4	-3.4	-1.0	3.3	4.5	4.6
실업률 (계절조정, %)	3.8	4.0	3.8	4.3	4.4	5.4	4.0	3.9	3.7	3.8

자료 : 통계청.

## 6. 수출입

□ 5월 수출 45.6% 증가, 수입 37.9% 증가, 무역수지 흑자 29억 달러

○ 지난 5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무려 45.6%나 증가한 507억 달러, 수입은 37.9% 증가한 478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주요 지역에 대한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등의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는 한편, 유가 상승에 힘입어 석유 관련 품목 수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2개월 연속 40%대 증가율을 기록

- 수입도 원유와 철광석 등 1차산품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등 자본재와 중간재 수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백신 도입으로 의약품 등 소비재 수입이 두 자릿수 증가하면서 30%대 증가율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66.8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163.0% 상승하고, 도입물량도 1.1% 증가 전환하면서 전체 금액 기준 165.8% 증가한 53억 달러를 기록

###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5월
수출	5,422 (-10.4)	5,128 (-5.4)	1,301 (-3.5)	1,419 (4.1)	1,464 (12.5)	480 (11.4)	447 (9.2)	537 (16.4)	512 (41.2)	507 (45.6)
수입	5,033 (-6.0)	4,676 (-7.1)	1,141 (-8.7)	1,237 (-1.7)	1,361 (12.0)	443 (3.6)	422 (14.1)	496 (18.7)	508 (33.9)	478 (37.9)
무역수지	389	452	160	182	104	37	25	41	4	29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2) 5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 12개 주력 품목 수출 동반 증가세, 9개 품목이 두 자릿수 증가

○ 반도체 : 스마트폰 5G 본격화와 테이터센터 업체들의 투자 확대 등으로 메모리 주문 확대가 본격화되고, 수요 확대에 의한 메모리 가격 상승과

비대면 경제 수요에 따른 노트북 판매 호조로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

- **자동차** :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등 공급망 리스크 확대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국·EU 등 주요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세와 SUV·친환경차 수출 단가의 강세 등이 이어지면서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부품** : 부품 수급 차질로 인한 일부 공장들의 생산량 조절 요인에도, 미국·EU·중국 등 주요국들의 소비 심리 개선으로 자동차 판매 시장이 활성화된 데 따른 영향으로 수출도 7개월 연속 증가세
- **선박류** : 해상운임이 상승하면서 컨테이너선 중심의 글로벌 발주가 이어지고 있으나, 지난 5월에는 과거 선가가 낮은 시기에 수주한 선박들의 대부분이 통관되면서 수출이 7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
- **디스플레이** : 노트북·모니터·TV 등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LCD 물량 증가세와 단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OLED 스마트폰 출하량의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출이 전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
- **무선통신기기** :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확대와 유럽 지역에서의 판매 호조에 따른 완제품 수출 증가, 그리고 對중국 부품 수요의 견조한 증가세 등이 이어지면서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세
- **철 강** : 원자재 가격 강세와 글로벌 철강 수요 회복세 등에 힘입어 수출 물량과 수출 단가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고, 건설과 자동차 등 전방산업들의 경기가 크게 개선되면서 수출도 5개월 연속 증가세
- **섬 유** : 글로벌 섬유 수요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물품 수요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세
- **석유제품** :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석유제품 수출 단가가 동반 상승하고,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항공노선 증편 등 항공유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도 3개월 연속 증가세
- **석유화학** : 유가 상승으로 높은 수출 단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들의

경기 회복에 따른 자동차·가전·섬유 등 전방산업의 수요 증가로 합성수지 등 관련 품목들의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 **일반기계** : 경기 회복으로 미국·EU 등 선진국과 인도·중남미 등 신흥국 등 지로의 건설기계 수출이 증가하고, 주요 품목인 가공기계와 밸브·베어링 등 기계요소들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
- **가 전** : 주요국들의 경제 정상화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국내 기업들의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 및 新제품 출시, 원자재가격과 물류비용 증가에 따른 가전 판매 단가 상승 등으로 전체 수출도 11개월 연속 증가세
- **컴퓨터** : 5G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데이터 고용량화, IT기업들의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회복에 따른 SSD 단가 상승, 그리고 반도체 품귀 현상에 따른 낸드플래시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세

###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5월
자동차	5.3	-13.1	1.6	1.1	31.5	40.2	46.9	15.2	73.5	93.7
자동차부품	-2.5	-17.3	-15.7	3.8	5.6	3.7	0.2	12.6	99.9	182.3
선박류	-5.3	-2.0	-8.2	32.1	28.2	23.3	3.5	62.7	14.3	-14.9
일반기계	-1.9	-8.8	-11.0	-5.1	-1.1	-4.9	-5.7	6.1	17.0	25.9
철 강	-8.6	-14.4	-12.6	-6.5	7.6	5.9	3.4	12.9	39.0	62.9
석유화학	-14.8	-16.4	-16.5	-7.7	26.7	8.7	23.4	48.5	82.8	94.9
석유제품	-12.2	-40.6	-43.8	-44.7	-16.6	-44.5	-12.2	19.1	98.5	164.1
섬 유	-8.0	-13.3	-7.6	-6.5	-8.4	-8.0	-24.0	9.0	46.5	57.6
가 전	-3.6	0.5	16.4	18.9	15.7	19.0	10.1	18.0	69.4	89.4
무선통신기기	-17.6	-6.4	-14.4	11.8	21.6	57.9	10.3	5.9	79.7	41.4
컴퓨터	-20.6	57.2	82.4	8.5	2.8	5.7	-4.1	6.9	2.1	7.5
반도체	-25.9	5.6	6.9	18.7	14.0	21.6	13.1	8.6	30.2	24.5
디스플레이	-17.0	-12.3	-17.7	17.8	16.3	32.2	19.1	-1.1	43.5	38.6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 5월 실적은 잠정치 기준.

부 록	산업별 수출경쟁력 비교 및 시사점
-----	--------------------

현대경제연구원(2021.5.14일)

□ 개 관

- 국내 수출이 2020.11월부터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기저효과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 빠르게 상승한 수출경쟁력에도 기인
- 지난 2000년 이후 국내 전체 수출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특히 최근에는 일본과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한 모습이나, 산업별 수출고도화<sup>1)</sup> 정도는 서로 상이할 것으로 추정

□ 산업별 한국의 수출고도화 지수와 상승률 비교

- 2000년 이후 산업별 수출경쟁력은 대부분 상승했으나, 2019년 기준 수출 경쟁력 수준과 2000~19년간 상승률은 서로 상이
  - 산업의 수출고도화 지수는 전 세계 측면에서 해당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정도와 해외 시장에서의 수출 점유율을 모두 반영
- **(2019년 기준 수출경쟁력 수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진전과 수출 증가는 정밀기기(163.5p), 반도체 및 전자부품(158.1p), 영상·음향·통신기기(156.5p) 등에서 현저하게 이루어진 반면, 석유·석탄(103.7p), 전기기계(104.6p), 경공업(110.0p) 등은 임금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
- **(2000~19년간 상승률)** 석유·석탄(3.8%)과 반도체 및 전자부품(3.3%), 기타 수송기계(3.2%) 등에서 수출경쟁력이 크게 높아졌지만, 전기기계(0.5%)와 플라스틱·고무제품(1.2%), 가정용 전기기기(1.2%) 등은 상대적으로 부진
- **(기간별)** 산업별 수출고도화 지수는 기간별로 수출경쟁력의 상이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2000~10년에는 석유·석탄(6.1%)과 반도체 및 전자부품(5.3%) 등에서 수출고도화 지수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높아지고, 2010~19년에는 기타수송기계(5.2%), 영상·음향·통신기기(4.2%), 컴퓨터 및 사무기기(3.5%), 정밀기기(3.2%) 등에서 수출경쟁력 제고가 두드러진 모습

□ 산업별 한국과 주요국의 수출고도화 지수 비교

- **(5대 경쟁국 평균치 대비 빠른 성장 업종)** 반도체 및 전자부품(3.2%), 컴퓨터 및 사무기기(2.2%), 비금속광물제품(1.8%) 등은 수출고도화 지수의 상승 속도가 주요 5대 경쟁국의 평균치보다 빠르면서 높은 수준을 달성

---

1) 수출고도화 지수 분석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은 현대경제연구원(2021), “주요국 수출경쟁력 비교 및 시사점” (경제주평 21-03) 참고.

- 기타수송기계(2.5%)와 일반기계(1.7%), 정밀기기(1.7%), 철강 및 금속제품(1.4%) 등은 상승 속도가 빠르지만, 수준은 주요 경쟁국 평균치와 비슷
  - 석유·석탄(3.8%), 화학(1.9%), 가전(1.2%), 영상·음향·통신기기(2.1%) 등은 수출고도화 지수의 상승 속도가 주요 경쟁국들보다 빠른 모습이나, 수준은 주요 경쟁국들의 평균치를 여전히 밑돌고 있는 실정
- (5대 경쟁국 평균치 대비 느린 성장 업종) 자동차(1.6%)는 한국의 수출고도화 지수 상승 속도가 5개국 평균치(2.0%)보다 느리지만, 이는 동 기간 중국(4.5%)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이며, 일본(1.3%)이나 미국(1.3%), 독일(1.4%)보다는 빠르지만, 2019년 기준 수출고도화 지수는 다소 낮은 수준
- 경공업(1.4%)은 수출고도화 지수의 상승 속도가 5개국 평균치와 비슷하고, 플라스틱·고무제품(1.2%), 전기기계(0.5%) 등은 5개국 평균치를 하회

〈표〉 한국의 산업별·국가별 수출고도화 지수와 연평균 증가율 비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00년 세계 전체 평균 수출 고도화 지수=100p 기준.

## □ 시사점

- 중국, 미국 등 중심으로 회복하는 글로벌 경기에 따른 수출시장 호황에 대응하고, 수출 확대가 국내 경기 및 일자리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대응
- 미·중 무역 갈등, 글로벌 통화 긴축 등 예상되는 수출시장 불확실성을 사전에 대응하여 수출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지속적인 국내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신성장·고부가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인력 양성 지원정책 강화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차별적이고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 6.14 )	( 6.15 )	( 6.16 )	( 6.17 )	( 6.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월 산업생산(수)</li> <li> 4월 산업생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월 소매판매(수)</li> <li> 4월 수출입통계</li> <li> 5월 산업생산</li> <li> 5월 소매판매</li> <li> 연준 FOMC(6.16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무역수지(잠)</li> <li> 4월 기계수주</li> <li> 5월 산업생산</li> <li> 5월 소매판매</li> <li> 5월 고정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J 통화정책회의</li> <li> 5월 소비자물가수</li> <li> 5월 경기선행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소비자물가</li> </ul>
( 6.21 )	( 6.22 )	( 6.23 )	( 6.24 )	( 6.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생산자물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월 경기선행지수 (수정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내구재수주잔</li> <li> 211분기 실질GDP (확정치)</li> <li> 6월 소비자동향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개인소비</li> <li> 6월 가업경기실사주</li> </ul>
( 6.28 )	( 6.29 )	( 6.30 )	( 7.1 )	( 7.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실업률</li> <li> 5월 무역수지(수)</li> <li> 6월 경제채감지수</li> <li> 6월 소비자신뢰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산업생산(잠)</li> <li> 5월 소매판매(잠)</li> <li> 6월 소비자물가예</li> <li> 5월 산업활동동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실업률</li> <li> 6월 ISM 제조업지수</li> <li> 6월 수출입통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고용보고서</li> <li> 5월 무역수지</li> <li> 6월 소비자물가</li> </ul>
( 7.5 )	( 7.6 )	( 7.7 )	( 7.8 )	( 7.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소매판매</li> <li> 6월 ISM 비제조업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경기선행지수 (잠정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소비자물가</li> </ul>